# 입사지원서



지원분야 : Frontend 경력여부 : 신입

<u>com</u>			
고객응대, 판매, 물류, 매장관리			
고객응대, 판매, 물류, 매장관리			
고객응대(CS), 홈페이지 관리, 주문 관리			

# 경력사항

근무지	미샤 이마트월계점	근무기간	2017.09 ~ 2018.05
담당업무	고객응대, 판매, 물류, 매장관리	l, 재고 관리	
근무지	올리브영 동묘앞역점, 노원역 사거리점	근무기간	2016.03 ~ 2017.07
담당업무	고객응대, 판매, 물류, 매장관리	4	

#### • 지원동기

코로나는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벗어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가져다주었습니다.

프론트엔드 공부를 시작하기 전까진 서비스직에서 근무했습니다. 서비스직 분야에서 더다양한 커리어를 쌓고 싶어서 대학에 재입학해 학업을 마칠 정도로 서비스 직군은 직업적 적성에 잘 맞았습니다. 하지만 대학 졸업할 때 즈음에 코로나가 발생했고 오프라인 서비스 쪽은 얼어붙었습니다.

예상치도 못한 변수에 막막했지만, 눈에 들어오던 게 있습니다. 서비스의 제공 형태가 바뀐 것입니다. 제가 최근까지 일했던 올리브영을 예로 들겠습니다. 올리브영은 코로나로 매출이 줄어들자 직원과 오프라인 매장 수를 줄였습니다. 매각설까지 돌면서 오프라인 화장품 매장의 종말을 고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올리브영은 올해 최고 매출을 달성하며 코로나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올리브 영은 배달음식처럼 휴대폰으로 주문을 하고 집에서 배달 받거나 근처 매장에서 수령하는 오늘 드림 서비스, 고객의 고민과 취향을 직원용 태블릿으로 입력하면 추천을 해주는 맞춤형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리브영이 오프라인 매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시너지 효과를 어우를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대응하는 것을 보며 서비스 쪽에서 계속 일하고 싶어 하는 저 또한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과 달라진 상황에서 고객에게 서비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게 되었고 프론트엔드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오프라인 뿐만이 아닌 온라인에서도 고객의 불편한 점을 개선했을 때 얻는 성취감은 고객을 마주하면 서비스 업무를 했을 때보다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다양한 고객을 만나면서 겪은 경험은 개발하는 입장에서 다른 각도의 시야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 • 성장환경

변화의 순간에 새로운 길을 찾아 도전하는 건 저에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한 젊은이가 평생 하던 농사일을 그만두고 도시로 올라옵니다. 젊은이에게는 자신의 가족들을 부양하고 가문을 일으켜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전후에 산업화를 만나게 되면 보통은 도시노동자로 일을 시작합니다.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동에서 외화벌이를 할 수 있다는 기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도전을 하기로 합니다.

그의 아들은 중동으로 떠난 아버지를 대신에 가장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가 중동에서 돌아와서야 비로소 집이 여유가 생겼던 거지, 그전에는 판자촌에 살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아들은 어떻게 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아들은 고민 끝에 비행 정비 기술을 익힐 수 있는 항공고등학교에 들어갑니다. 1989년에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가 이뤄지기 전이라 항공이라는 분야가 생소했던 시기입니다. 다른 쉬운 방법도 많았을 텐데 아들은 항공 기술자가 되어 가난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합니다.

앞의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두 사람은 저희 할아버지와 아버지입니다. 두 분의 신화는 유 산으로 남아 저에게 전해졌습니다. 두 분이 어떻게 장애물을 헤쳐나가는지 보고 듣고 자라면 서 변화가 필요할 때 돌파구를 찾아내는 데 익숙합니다. 개발 직군은 새로운 기술과 환경의 변 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곳 중 하나입니다. 제가 가진 원동력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공부하면서 빛을 낼 것입니다.

#### • 해당 직무에서 겪은 어려움과 극복과정

#### 습관은 뇌를 속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개발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공부하기 전에는 추상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느 방향의 개발자로 가야 할지 생각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고객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해서 온라인으로라도 고객을 마주할 수 있는 프론트엔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구현한 것을 고객이 유용하게 이용하면 뿌듯할 거 같았습니다.

비전공자도 코딩을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 길을 가기에는 어렵습니다. 같이 과정을 시작했던 15명의 학원생 중 4명이 포기한 걸 보면 보았습니다. 낯선 프로그램 언어는 내가 이 길을 걸을 수 있는지 고민하게 했습니다. 코드를 조금 짜다 멈추고, 짜다 멈추고를 반복하며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서 생활 속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10분이라도 타이머를 맞춰 놓고 스스로 코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습관을 만들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서 하라는 조언을 듣고 시작했습니다. 시작할 때는 타이머를 틀고 했지만 지금은 스톱워치를 틀고 코딩시간을 잴 정도로 자리에 앉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습관을 들이고 나니 어려웠던 게 이해가 가기 시작하고 재미가 붙어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html과 css도 어려웠습니다만 지금은 php, mysql, react, vue 를 즐겁게 다룰수 있습니다. 학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방법으로 저만의 것을 만들어 냈을 때 성취감은 극대화되었습니다.

## • 성격

#### 저는 불편한 부분을 감지하고 짚어냅니다.

밝고 활발한 성격 덕분에 서비스직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었습니다.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의 관점과 손실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물건을 구매하려는 고객과의 줄다리기를 잘하려면 원활한 대화를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비스를 오래해 온 '대화의 기술'이 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워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늘 낙천적인 성격만은 아닙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걸 혼자서 너무 불편해한다는 이야 기를 주변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단점이 야누스의 얼굴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가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불편함으로 바꿔 생각해 좋은 결과로 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모차 회사에서 인턴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회사의 주력 상품은 휴대용 유모차였습니다. 아이들이 몸을 지탱해주고 손잡이로 사용하는 부품이 부러진다는 내용의 접수가 중복되어 접수 되었습니다. 비슷한 문의한 고객들을 취합해 구매 시기를 추려낸 다음 물류팀에 상품 입고 날짜를 문의하였습니다. 고객이 구매한 날짜와 유모차가 납품된 날짜를 비교하니 특정 차수에 입고된 유모차만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전체 회의 때 이 건을 보고하여 납품 회사의 부품제조 공정을 확인하니 공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객에게는 손잡이를 무상교체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누군가는 단순히 넘어갈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에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상대방도 불편할 수 있다는 생각, 즉 역시사지의 마음으로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